

한살림농부이야기

2020년  6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28호

발행인 이백연 편집인 곽현웅
편집부 한혁준 김진주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문의 043.716.0508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음성공동체 정구홍 생산자



한살림 블루베리! 생산자의 얼굴과 이야기를 신고 소비자조합원을 만난다.

한살림 블루베리 생산자는 괴산, 부여, 영동, 원주, 음성, 청주, 충주, 홍천, 횡성 등 전국에 생산지가 있고 전체 생산자는 20여 명 정도 된다. 2019년도에는 약정량 대비 120% 이상 공급이 되었는데, 양으로 환산하면 76,833상자/500g으로 3.8톤 정도 된다. 이는 '좋은 물품을 소비자조합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생산자의 마음이고 소통 창구다'라는 심정으로 물품선별에 고심을 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블루베리는 한살림 최초로 생산자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아서 소비자조합원에게 공급 된다.

2019년도에 블루베리 생산자들이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생산자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아서 좀 더 가까이 소비자조합원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자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던 결과물이다.

한살림 블루베리를 시작으로 생산자 얼굴과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물품이 공급되기를 바란다.

‘감자 꽃’의 고장 충주공동체 한살림 참여인증을 돌아보다.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 보나 마나 하얀 감자’

1948년에 출간된 충북 충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권태웅 시인의 동요집 ‘감자 꽃’의 노랫말이다. 시인은 딱 이맘때쯤에 밭두렁을 밟아보며 시적인 영감을 떠올렸으리라. 그리고 가장 서민적이고 쉬운 언어로 시대적 아픔과 서정을 담은 노랫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충주시 소태면 초입부터 하얀 꽃을 피운 감자 잎이 무성하다.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를 입어 싹이 죽고 다시 튀워낸 생명력이 그새 모양새를 갖추긴 하였다. 하지만 땅 밑 감자가 제대로 몸집을 키웠을는지 농부의 시름이 깊다.

한살림생산자연협회 충북북부연합회 충주공동체는 과수와 시설잡곡, 수도작 등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사과와 복숭아 작목반은 한살림 자주인증으로 단련되어 참여인증의 기초가 든든하다. 2020년에는 과수 이외 작물 생산자가 모두 결합하여 참여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충주공동체 대표인 허명회 회원을 만나 참여인증 진행상황을 듣고, 허만영 충북북부연합회 대표와 후계자 허문성을 만나 올해 농사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인증의 시작은 말 그대로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한살림 참여인증의 생산과 관리 방식에 동의, 결의하고 함께 참여하는데 있다. 그런데 올해는 한살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충북북부연합회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충주공동체 월례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참여인증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공동체 회원들이 한살림운동의 관록과 자주인증의 경험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월례회 대신에 작목 분과별로 임시회의를 열어 참여인증 필지점검을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준비는 충북북부연합회 사무국의 김준석 실무자와 공동체 생산관리책임자인 최승진 회원이 주로 담당한다. 평소 월례회의에서는 사무국 보고 자료를 통해 한살림과 전국 생산지 돌아가는 소식을 공유하고, 공동체나 작목반의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해 왔다. 과수, 시설잡곡, 수도작 분과는 한살림의 생산출하기준에 맞게 회원들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필지점검을 할 때에는 작목회원들이 사무국에 모여 필지 방문 순서를 짜고, 회원들의 전체 필지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도작분과는 못자리 만들 때 함께 모여 종자와 파종 상황들을 둘러보며 의견을 나눈다.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는 바쁜 철이지만 풍년농사를 꿈꾸는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과수분과는 꽃이 피고 착과 되는 시기에 맞춰 2차례에 걸쳐 필지점검을 진행하였다.

지난해보다 겨울이 따뜻해 꽃이 일주일 정도 일찍 피는 현상이 일어나고, 꽃이 저온에 노출되면서 씨방이 검게 변해 수정이 되지 않는 피해가 생겼다.

수정이 되더라도 기형과로 일찍 낙과될 수 있어 복숭아와 부사 사과의 작황에 걱정들이 많다. 과수 냉해에 따른 작황은 6월에 봉지 싸기를 하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지점검은 회원의 개인적인 영농활동을 다른 회원들에게 드러냄으로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영농방법에 대해서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물을 보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효과적이다. 수박, 브로콜리와 같은 시설작물은 자가육묘 시기나 정식 시기에 함께 필지를 점검한다. 특히 육묘가 까다로운 수박의 경우, 작목반 회원들이 농사 경험과 기술을 나누며 서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지점검은 한살림참여인증 필지점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오염의 우려가 있는지, 자재 관리를 잘 하는지, 작물은 약정 작기에 따라 생산,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친환경 자재는 목록공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과수는 품목별로 한살림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재를 사용하고, 영농일지에 사용 시기와 양을 기록한다. 영농일지는 참여인증 기본 구비 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에 잘 관리하고 있다.

물품 출하는 한살림생산출하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구매부와 물류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진행한다. 허명회 회원은 복숭아 출하시기 발주된 물량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한다.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개인별 약정 물량에 따라 출하량을 조정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필지점검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잘하는 일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안 되는 일은 협동의 방식으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허명회 회원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품종을 갱신하고, 맛과 품위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살림 생산자들의 공통되는 고민거리이자 과제이다. 아직도 공동체 내에서 참여인증에 대한 어려움이 이야기 되고 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서로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필지점검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지만 의미도 있고, 회원 개개인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인증과 이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는 선뜻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한다. 한살림의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참여인증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인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크다. 충주공동체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참여인증을 통해 한살림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바라는 과정중심의 참여인증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대운 생산자 고추 필지



한효덕 생산자 복숭아 필지점검



최승진 생산자 복숭아 필지점검

한살림 생산자자가 퇴비 만들기 II

자가제조퇴비로 수박을 공급한다
"좋은 퇴비를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충주공동체 안혁기

3년째 유기농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충주공동체 안혁기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유기농의 핵심인 땅의 유기물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자가 퇴비를 만들어 한살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심고 후작은 당근을 심어 한살림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한살림 최초로 19년에 속노랑 수박을 공급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년에는 수박 육묘를 거의 실패를 하였지만, 이후엔 자가 퇴비의 힘으로 좋은 수박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문의 생산자연합회 생산지원부 주영달 차장 043-716-0508

1. 목표는 내 땅의 유기물 함량이다.

- 수년째 벼농사를 하던 곳을 한살림에 수박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하우스를 만들었음.
- 벼농사를 유기농으로 농사 지었을 때에는 유기물 함량이 1.5% 정도 되었지만, 퇴비를 직접 만들어 시설하우스에 사용한 19년도에는 2.2% 정도로 올랐고, 최종 3.5% 이상 유기물을 만들기 위해 직접 만든 퇴비를 사용하고 있음.

공극율	고상	기상	액상
60%	40%	28%	32%

- 작물재배에 적합한 공극률(공기구멍)과 토양의 삼상분포

토양유기물함량	1.8%	2.0%	3.0%	3.5%	4%
공극율	45%	49%	56%	56%	60%

- 식양토에서의 토양 부식 함량과 공극률
 - 토양 유기물 함량이 1.8% 일 때는 공극률이 45%이나, 4%가 되면 공극률이 60%가 된다. 60%-45%=15%가 되는데 이런 경우 수확량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1-1 안혁기 생산자의 시설 하우스 현황 및 출하 내용

- 180평 단동 시설 하우스 13동 = 전체 2,340평
- 2019년도 생산이력 : 전작 유기 수박, 후작 유기 당근
- 출하처 : 한살림
- 19년 조수익 : 8천3백만 원
- 특징 : 수박 특(8kg 이상)이 77% 이상 생산됨.

2. 2019년도의 유기수박 생산의 기적

- 103평의 퇴비장을 임대하여, 직접 자가 발효 퇴비를 만들었음.
- 수피 107톤 + 생계분(무항생제 산란 계분) 80톤+ 미강+ 미생물
- 재료 구입처 :
 - 수피는 우드칩(펄프용, 조경용)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풍림산업 충주공장에서 구입 : 톤당 6만 5천원
 - 무항생제 계분(산란계)는 여름에는 계분 비용 없이 운반비만 받고 있음. 15톤 덤프 차량_ 15만 원

내용	비용	전체비용	비고
수피	톤당 6만 5천원	107톤=6,955,000원	
무항생제 계분	15톤 15만원	80톤=800,000원	
합계		7,755,000원	

- 여기에 퇴비를 잘 섞을 수 있는 인건비, 농기계 사용비는 빠짐.
- 단순하게 생각하면, 평당 3,314원 정도로 퇴비값으로 소요됨.
- 충주시에서는 퇴비 지원사업으로 70% 정도의 보조가 있어서, 퇴비 비용에 도움이 됨.
- 19년도에 수박 육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식 후 20일이 지난 후에 싱싱한 잎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김.



3. 2020년 산 퇴비 만들기 및 농사 적용

- 매년 여름 200여 톤의 자가 퇴비를 만듦. (수피 120톤+무항생제 계분 100톤+미강 30톤+ 발효제)
- 퇴비 안에 방선균이 많다.
- 올해는 150평에 4톤 정도의 발효 퇴비를 넣었음.
- 당근 2동, 수박 11동을 심었고, 퇴비 이외에 일부 아미노산과, 발근제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잘 자라고 있음.
 - 발근제는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자재가 아닌 미생물 제재로 만든 유기자재 목록공시된 자재임.



3-1. 자가 퇴비를 만드는 방법

- 1) 수피를 쌓아서 물을 충분히 준다.
 - 70% 정도 물을 주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물을 주고, 얇은 목재를 팬치로 눌러 물이 나오면 됨.
- 2) 수피를 바닥에 깬다.
 - 그 위에 계분, 쌀겨, 미생물을 넣고 잘 섞어야 한다.(로터리를 잘 쳐야 한다.)
- 3) 잘 섞은 퇴비를 퇴비장에 넣는다.
 - 퇴비장은 반드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제조해야 한다.
 - 퇴비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 수분함량은 60~65%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퇴적 시 압착되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3-2. 뒤집기 작업 기준

회차	기준	겨울	여름
1차 뒤집기 작업	퇴적한 날부터	10일	7일
2차 뒤집기 작업	1차 뒤집기 한날부터	20일	17일
3차 뒤집기 작업	2차 뒤집기 한날부터	25일	22일
4차 뒤집기 작업	3차 뒤집기 한날부터	30일	27일
5차 뒤집기 작업	4차 뒤집기 한날부터	40일	35일

• 자가 퇴비 만들 때 수피의 중요성

땅심의 기본이 되는 토양 유기물이란?

먼저,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기물이란,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으로, 각종 퇴비를 포함해 볏짚, 보리짚, 낙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양분으로서, 가열을 해도 타지 않고 변화도 없는 물질로, 물, 모래, 석회, 소금, 철, 구리 등입니다.

그러면 유기물과 토양 유기물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볏짚이나 보리짚, 낙엽 같은 유기물이 토양 속에 들어가면 토양 속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이를 먹이로 하여 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해가 진행되고 나면, 난분해성인 리그닌이 잔재물로 남게 됩니다.

이때 생긴 미생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멸과 발생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의 사체인 균체와, 유기물이 타거나 분해한 후에 남는 무기물이 화분입니다. 이것들의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물질을 토양 유기물 또는 리그닌단백복합체, 부식, 토양휴머스로 하고 합니다.

토양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듯, 일반적인 볏짚이나 보리짚, 낙엽 같은 유기물과 토양 유기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유기물이든 넣으면 땅심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	연간 시비량	연간부식량	결과	비고
일반퇴비	1,500kg	150kg	10년후	부식률
(볏짚 원료)			1% 증가	10%기준
부숙 톱밥 (톱밥, 파쇄목, 대뿔, 갈밭, 수피, 전정목 등)	1,500kg	600kg	3~4년 후, 1% 증가 (10년 후 3% 증가)	부식률 40% 기준

- 퇴비 종류에 따른 토양 유기물 함량 1% 증가 시 비교(10a당)

<참고 자료> 농사는 명심이다 - 석종욱

한살림 생·소 협업형 매장의 의미와 과제를 생각하며



이제철 부어연합회 진호공동체 생산자/한살림생산자연협회 감사

한살림은 최근 몇 년간 공급 침체와 경영악화로 매장 개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품 사업 측면에서 생명살림 운동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외부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푸드플랜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에 120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한다고 한다.

이는 경쟁의 심화로 한살림 매장사업의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한살림 조직의 로컬매장 위탁 운영, 한살림사업연합을 통한 물품공급의 확대 등 로컬푸드 직매장을 적절히 활용하면 한살림 운동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이나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활협동조합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원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한살림매장 운영의 법인 형태를 다변화함으로써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에 생산조직이 중심이 돼서 생산공동체가 있는 군소 단위 지역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소 협업형 매장 개설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지난 2020년 4월 한살림 연합 이사회에서 기준과 방향 원칙과 절차를 정하면서 한살림 생·소 협업형 매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 생산자 모임에서 생·소 협업형 매장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2011년에 부어생산자연협회가 한살림대전과 공동으로 부어에 매장을 개설했던 경험이 있어서 무척 반갑게 들립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의 고민과 보람을 나눠볼까 합니다.

매장을 내기 위해 뛰어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부어는 인구 6만의 작은 도시로 한살림 소비자 회원은 100여 명 정도로 한살림의 토대가 매우 척박했던 지역이지요. 부어에서 조합원을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매장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마침 1년 먼저 괴산연합회에서 매장을 개설한 것이 자극도 되었고요. 부어에 매장을 개설하자는 결정이 나자, 우리 생산자들이 매장 입지도 직접 알아보고, 비용을 아끼려고 건물주와 술도 한잔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깎았던 기억도 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매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좌도 열고, 장터도 열면서 재미있게 활동했습니다. 매장 개설 후에도 소비자 조합원들과 매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부어매장은 개설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조합원수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산자도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도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여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부어매장을 개설하려는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생산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농사는 환경을 생각하며 짓고 있지만, 정작 생활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 없이 슈퍼에서 일반 세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지요. 집안 한 곳에 가득히 쌓여있던 휴지, 치약과 샴푸 선물세트, 주방세제와 세탁세제를 한순간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듯해요. 매장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부어연합회의 모든 생산자는 매월 물품 이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생산자도 소비자처럼 조금씩 이용을 늘리면서 한살림 물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여가게 되었지요. 부어매장을 개설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생산자도 물품을 이용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어매장 개설 당시에 한살림대전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셨죠. 대전에도 매장을 개설할 곳이 많았는데 부어에 개설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소도시나 농촌에 매장을 개설한다는 게 위험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하지만 매장이 없다면 생산자들은 한살림 물품을, 생산은 하면서도 정작 이용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매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매장 안정화를 위해서 생산자들이 적극 이용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한살림 매장의 운영은 한살림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지요. 매년 물품 이용을 거듭하면서 다른 물품의 장점도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정서도 알게 되고, 매장 운영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소비자 조합원과 가족과 같은 관계도 형성하고, 조합원이 늘고 매장이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지 곳곳에 더 많은 생·소 협업형 매장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생산자가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생·소 협업형 매장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한살림 운동을 확산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요. 우리가 혼신을 기울여 생산한 물품을 소비할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생산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생산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소 협업형 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생산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연협회에서도 생·소 협업형 매장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철 생산자는 부어매장 개설 당시 부어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했으며, 현재 한살림생산자연협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부어연합회 진호공동체 소속으로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생·소협업형 매장 개설 기본 방향과 원칙

- ① 한살림 매장은 회원생협이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주체로 참여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법인 매장'은 한살림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장, 강화하고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립, 운영한다.
- ③ '법인 매장'은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 기본 가치를 전제로 인근 회원생협의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한살림 농업 생산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④ '법인 매장'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지역생산공동체)와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여 한살림 지역살림 운동을 확대해나간다.
- ⑤ '법인 매장'은 한살림 농업, 물품 정책과 기준 및 사회적경제기업 및 로컬물품 취급 규정을 준수한다.
- ⑥ '법인 매장'은 기존 회원생협 매장 운영이 어려워 폐점을 고려하거나, 물품공급이 어려운 도농복합 중소 도시에 한살림 생산공동체와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신규 매장을 개설할 때 위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생·소협업형 매장 개설 설립절차

● 개설 절차

- ① 추진 주체로 관할 회원생협의 승인을 거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한살림연합회와 관할 회원생협, 설립추진위원회는 해당 매장 운영 법인의 조직운영 역량(업무조직, 경영수지 예상자료, 사업연합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자립 조건, 운영 계획을 검토한다.
- ③ 매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면 연합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설립을 추진한다.

● **법인 형태** : 정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정책에 발맞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되, 법인 설립 이후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법인 형태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설 절차의 1호 2호를 생략

● **운영주체** : 한살림 생산자들과 지역 소비자 조합원들이 함께 자본 형성(출자, 주식매입 등)하고 운영위원회(혹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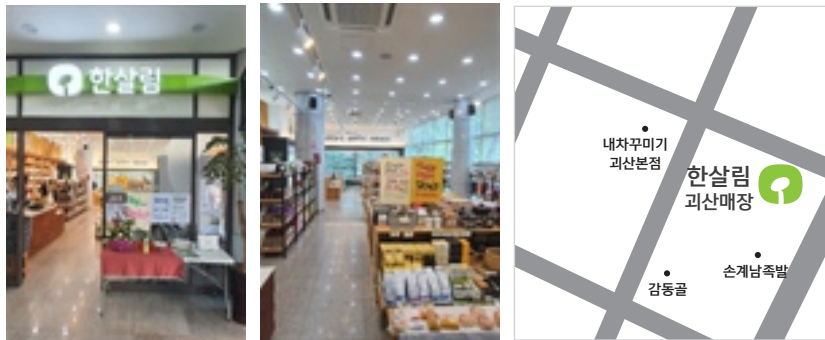
한살림 생·소 협업매장 운영현황 이모저모

한살림 생·소 협업매장은 6월 11일(목) 군산매장이 개소되면 전국에 5개 매장이 운영된다. 다양한 형태로 한살림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조합원과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한살림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살림 운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살림 괴산매장

(충청북도 괴산군 문무로 12, 1층)

한살림 괴산매장은 2010년 8월 괴산생산자연협회 생산자들이 중심이 돼서 13평 공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산자들이 단지 물품만 생산-출하하는 게 아니라 소비까지도 주체가 돼야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생산자들과 괴산 지역에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조직을 만들고 한살림을 지역에 알려나가면 괴산이라는 작은 지역에서도 한살림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괴산매장은 주차장이 넓고, 생산자들이 직접 매장으로 들고나와 소비자와 나눕니다. 생산지가 가까이 있어서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관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돈독합니다. 2020년도에 괴산매장은 매장대로 특성을 살려 잘 운영해나가고, 맞은편 공간에 별도의 지역 농산물 매장(로컬푸드)을 개설 운영하는 양날개 전략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합천매장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56 까치빌라 103호)

한살림 합천매장은 2018년, 합천군 농민회가 운영하던 합천읍내 로컬푸드 판매장이 문을 닫은 상태로 있었는데, 합천지역 한살림 생산자 중에 농민회 회원들이 매장 인수를 제안하여 경남생산자연협회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인수하여 생산자 자주관리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합천매장은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번개장터를 운영하며,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품위가 다소 떨어지는(B품)을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농산물 나눔과, 적체되는 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지고 구입하는 것이 특징적인 주요 활동입니다. 앞으로 조합원을 500명 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이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매장운영위원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살림 합천매장이 잘 운영되도록 각종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거창매장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5길 10-10)

한살림 거창매장은 2016년에 경남생산자연협회가 한살림경남에 생산자자주관리형식의 매장을 제안하였고 승인되어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거창 산하늘공동체와 산청연합회가 출자에 참여하였고 농촌지역이지만 읍단위로 생활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창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 매장사업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거창매장의 특징은, 매주 수요일마다 여성농민회(언니네텃밭)와 함께 매장 앞에서 수요장터를 열어 지역의 농민과 함께 토종농산물, 로컬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장 바로 앞에 조합원 활동실 겸, 협동조합 카페 '아날'을 열어 각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지역의 친환경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매장 안에 친환경로컬푸드 판매대를 설치하여 친환경로컬푸드물품(가공품 포함)을 상시 취급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각종 조합원 모임에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조합원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900명) 토종농산물을 로컬푸드 물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조합원 가입을 늘리고 한살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 홍천매장

(강원도 홍천군 갈마로 7길 28-22)

홍천생산자연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홍천에 한살림 매장 개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매장운영이 어려울 것이 우려되어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서 거창매장과 괴산매장에 방문하여 중소도시의 생산자 매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한살림춘천과 홍천연합회가 매장추진위를 구성하였습니다. 홍천 지역은 친환경 농가가 320농가로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친환경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비로소 2020년 5월에 친환경 농업을 알리고 한살림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살림 홍천매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홍천매장은 한살림춘천과 홍천 생산자연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생소 협업매장으로서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물품을 신선한 상태로 매장에서 공급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실은 조합원과 생산자가 직접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 매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홍천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요리교실, 직거래 장터, 소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소비자, 생산자의 활동을 통해 한살림 운동을 확산하고 친환경, 건강한 먹거리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활동 보고 내용

-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 ■ 5월 사무국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함.
- 위원회 보고** ■ 2차 여성위원회 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함.
- 각 부문 별 보고** ■ 총무회계부문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채용, 살림-e 기금률 공제 관련 내용, 외식법인 관련 내용을 보고함.
 ■ 생산지원부문에서 생사협업회의, 사과생산관련회의, 감귤생산관련회의, 감류생산관련회의, 생산관리 실무자 교육 계획, 20년 산 녹비작물 호밀 신청 현황을 보고함.
 ■ 정책기획부문에서 1,2차 경북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유기농마케팅센터 현황, 전남연합회 운영위원회-사무처 간담회 내용을 보고함.
 ■ 교육홍보부문에서 소식지 27호 발행,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회의체계 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내용, 신입 사무국장 연수 계획, 1차 회원가입교육 계획, 사무국장단 역량강화 교육 개최 내용을 보고함.
- 한살림연합 / 사업연합 주요보고** ■ 4월 30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1% 성장, 외부 동향 및 내부 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한살림 물품 이용 동향, 전처리 논의 경과, 한살림연합 이사회 결과, 3차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

주요 안건 논의 사항

제1호 안건 회원가입 승인의 건

제안 내용 아래 6세대의 가입을 요청함.

[아산연합회] 음봉지회 김후주, 최준호 배방지회 이진성 송악지회 이금순 영인지회 홍순권 **[경남연합회]** 거창 산하늘공동체 박흥진

결정 내용 원안대로 6세대의 가입을 승인함.

기조강연 및 워크숍

강연 주제 기후위기와 농업

생산자연연합회 이사회는 5월 20일 오후 2시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와 농업에 대한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역임한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 교수가 2시간 가량 강연을 하였으며,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산자 생활수칙 만들기' 모듈별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기후위기와 농업에 대한 강연 주요 내용

인류의 무분별한 소비와 개발로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생태계는 망가져 자연재해는 인류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구 기온은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하는 약 1만 년 동안 4°C가 올랐다. 하지만 사람은 최근 100년 사이에 1°C를 올렸다. 1만 년을 버틴 생태계는 지금의 속도를 못 버티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40년경에 1.5°C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구 평균기온이 1.5°C 상승할 경우 농업, 먹거리, 주거 등 생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며 0.5°C가 더해져서 지구 평균기온이 2°C를 넘게 되면 지구는 탄력성을 잃어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어 인류는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진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부족, 물 부족, 날씨 변화 등이 수반되고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영향력을 직접 받고 있다. 그 예로 2010년 러시아는 폭염과 가뭄으로 55,000명이 사망하고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던 밀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자, 러시아는 밀수출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2~3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식량 가격 폭등은 선진국보다 가난한 나라,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 결국 식량 자급률이 낮고 민주적 체제가 불안정했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아랍의 봄 사태가 일어났고, 이는 시리아 내전으로까지 이어졌다. 기후변화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한다. 지역에서의 한 가지 일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 발생했다. 과잉생산체계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며 이대로 놔둔다면 인류는 더 큰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이 단계를 넘어 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인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면 바로 지금,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사고체계를 통째로 뒤엎어 전환적 변화를 맞이하고 실천하며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간은 그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

[전환적 변화]

- 2020년부터 10년마다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2050년에 예상되는 인구 약 100억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려면 기존 식량 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식량 생산성을 매년 1%씩 높여야 한다.
- 전 세계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과도한 부의 재분배와 지역적인 공평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 세계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 양성평등, 의료와 가족계획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강의 이후 4개 모듈로 나누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산자 생활수칙 마련하기라는 주제로 모듈별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생산자 생활 수칙]

일상생활 대응

- 자전거 타기, 하루 만보 걷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한 등(한가정)끼기, 병 재사용, 장바구니 이용
- 음식물 줄이기(완밥), 음식재료 남김 없이 활용하기, 술 줄이기, 제철 농산물 먹기, 일회용 사용금지
- 포장재 줄이기, 기후위기 객관적 정보 얻을 수 있는 강좌 듣기

생산현장 대응

- 비닐 소각하지 않기, 농업용 재생 비닐(분해 비닐) 사용하기, 농업에 적정 기술 도입
- 농토 줄이기(소소한 농업),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생산 시설 요청(권역별로 퇴비생산시설 만들고 인근 농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각종회의 시 화상회의(격월제)로 진행하여 시간절약, 에너지 절약, 비용 절약





2020년 한살림 생산자 1차 회원가입교육 안내

한살림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농촌과 도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일구는데 주체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살림 생산자 1차 회원가입교육은 코로나 19로 당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1회차 - 2020년 6월 18일(목) / 10시~19시
 - 2회차 - 2020년 6월 19일(금) / 시간 동일
 - 3회차 - 2020년 7월 2일(목) / 시간 동일

장 소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회의실)

참석대상 회당 50명 / 3회에 걸쳐 진행



시간	내용
09:30~10:00	• 접수
10:00~10:50	• 인사말씀(회장님) • 교육 일정 안내 • 인사나누기
11:00~12:40	• [한살림 생산자 이해과정] - '한살림 가치와 꿈' / 한살림 생산자 조직운영원리에 대한 이해 - 강사 :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12:40~14:00	• 점심식사 (2층 느티나무식당)
14:00~15:00	• 한살림 농산물 생산 · 출하에 대한 이해 - 강사 : 기중연 (한살림사업연합 농산본부본부장)
15:00~15:40	• 한살림참여인증에 대한 이해 - 강사 : 김상통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생산지원부장)
16:00~17:00	• 한살림 물류의 이해
17:10~18:00	• 수료식 - 소감나누기 및 마무리 - 수료식 / 생산자의 다짐 낭독
18:00~	• 저녁식사 (2층 느티나무 식당) 후 집으로 출발

2020년 한살림 여성생산자 핵심일꾼연수 안내



한살림 생산농가의 수는 약 2,200여 가구입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2011년도 생산자 수첩>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성생산자 000의 부인'으로서만 불렸습니다. 여성생산자들은, '생산자 부인도 아닌, 사모님도 아닌' 자신의 이름과 언어가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삶 속에서 잘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조직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살림 생산자 조직이 어떻게 변하고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며, 한살림 생산자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여성생산자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한살림 생산자 조직 운영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 시 2020년 7월 3일 (금) 09시~18시

장 소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회의실)

참석대상 지역생산조직 여성대표 · 총무, 공동체 여성대표 · 총무 등 100여명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시간	내용
7/3 (금)	8:30-09:00	• 접수 및 등록
	9:00-09:40	• [지역별 소개와 인사] • [인사말] - 이백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 - 김영숙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전국 여성위원장) -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9:40-10:00	• [공연] 노래 및 악기 공연
	10:00-11:30	• [강의] 2020년 한살림생산조직 운영기초 - 강사 :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11:30-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 - 2층 한우밥상 '느티나무'
	13:00-14:30	• [발표] 2020년, 우리 여성생산자들이 이렇게 살거예요! - 2019년 전국 여성위원회 활동 영상 - 각 지역별 신임 여성위원장 인사 및 2020년 활동 계획 - 발표: 권역별
	14:30-14:50	• 쉬는 시간
	14:50-16:50	• [특강]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사회변화
	16:50-17:10	• [각종 공지, 기념 촬영 등]
	17:30-18:30	• [저녁식사 및 해산] - 2층 한우밥상 '느티나무'

청년생산자가 먼저 토종종자(토박이 씨앗) 살리기에 앞장섭시다.

이원직 생산자 <세종 고송공동체/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신토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엔 우리 땅에서 나고자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는 너무나 흔해져서 가슴에 별 감흥 없이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 몸엔 진짜 우리 것이 가장 좋을뿐더러 사라져 가는 우리 것을 꼭 지켜나가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농업현실 속엔 소리 없는 전쟁, 종자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밥상에 오르고 있는 먹거리의 태반이 외래종, 개량종들로 넘쳐납니다. 그 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종자전쟁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나감에 앞으로의 식량산업을 좌지우지해나갈 것입니다. 이 열악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살림 생산자들 안에서는 작은 힘이나마 토종종자를 지켜나가는 사명감으로 토종종자 나눔을 실천해나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괴산연합회 내 우리씨앗농장, 청주연합회 내 흥진희·임종래 생산자, 부여연합회의 토종씨앗 나눔 축제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전국청년위원회 (전) 위원장이셨던 흥진희 생산자는 십 수년간 토종종자를 살리기 위한 사명감 하나로 여러 가지 토종종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서서히 꽃을 피워나가는 것인지 토종 흑수박, 토종 재래중파, 토종고추 등이 출하되었고 그 재배 농가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들 우리 토종농산물이 좋고,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외래종·개량종에 비해 생산성도 낮고 재배의 어려움과 기술부족으로 적극적인 물품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적고

참여농가의 부족으로 출하량도 미비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맛과 영양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청년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우리 토종종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명맥을 잇고,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토종종자의 불씨가 훗날 커다란 들불로 번져나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청년생산자들부터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과제인 토종종자를 지키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들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종농산물 파이팅!



토종 흑수박 씨앗 심기



토종 중파



'조직 개편으로의 전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경북의 3개 권역(동부, 중부, 북부)협의회가 통합하여 경북연합회로 발족하려 합니다. 경북권역은 2017년 생산자연합회의 조직개편 기조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조직개편 TF 구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년간 연합회 구성 관련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친 끝에 경북연합회로 통합의 깃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북연합회는 준비과정 중 괴산연합회에서 이관한 상주 문장대공동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공동체(171가구)가 다시 새롭게, 신명나게, 하나되어, 생명 농업의 길을 걸어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창립총회를 축제의 장으로 전국의 생산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만,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창립총회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외빈 또한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면 전체 생산자대회로 단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정 2020년 6월 9일(화) 14:00

장소 천주교 안동교구 농운수련원 운동장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7)

총회 당일 주요 내용

1부 기념식	2부 본회의
- 생명의례	- 의사록 서명인 및 서기 선출
- 창립준비위원장 인사	- 부의 안건심의
- 창립준비위원회 경과보고	· 제1호안건. 정관(안) 승인
- 축사	· 제2호안건. 규약(안) 승인
- 내빈소개	· 제3호안건. 임원 선출
	· 제4호안건. 2020년 활동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제5호안건. 기타 안건
	- 폐회선언

- 당일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참석기준 : 가구당 1인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능한 댁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는 재생종이로 만듭니다.